

##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제22차 1600년대회 현장

### # 왜 평화·행복인가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대학생으로, 청년 불자로, 그 외의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7월 31일 입재식, 대불련 박종찬(96학번·원광대·전기전자학과) 회장은 이 말부터 던졌다. 그리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불자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세상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프로그램들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별 토론 시간이 강화되고, 티베트 초펠 스님의 ‘일상에서의 수행’에 대한 특강,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 씨와 대화 등 ‘특별한 만남’도 준비됐다. 또 ‘술 해설가와 함께 떠나는 생태기행’은 인류최대의 화두가 된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1일 조별 분임 토론 시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평화와 행복의 정체,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는 다소 무거웠지만, 표정에는 진지함과 발랄함이 묻어났다.

“마음이 먼저 평화스러워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유했을 때, 비로소 평화와 행복의 꽃이 피워지지 않을까요?” <이화여대 이보라미(02학번·국문과)>

“그럼 평화와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스스로 책을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혼자 선택에서도 찾고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광주대 국성민(02학번·문헌정보학과)>

“글쎄?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다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큰 의미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닐까요?” <울산대 유강희(96학번·생물학과)>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잖아요? 진정한 우리들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몸과 마음으로 부딪쳐보고요.” <‘황금빛’ 조원 다함께>

### # 협동만으로 풀 수 있는 놀이

한반도 퍼즐 그림 맞추기 게임, 추억의 명령운동회, 생태기행. 모든 프로그램들은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했다. 기존의 사고 틀을 깨야하는 것은 물론, 자기를 버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됐다.

1일 진행된 ‘꼬인 손 풀기 게임’ 법우들의 지혜가 모아졌다. 이치를 알면 간단히 풀릴 문제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이다. 하지만 한 법우가 한 손을 치켜 올려 물고를 뜨자, 단번에 꼬인 손들이 풀려진다. 줄줄이 개선문을 통과하듯 손들이 풀리면서 금세 200여명이 커다란 원을 만들어낸다. 모두들 신기한 듯 환호성을 질러댄다.

다음은 조별 퍼즐 맞추기 게임. 공무리에 달리 풍선이 터질라 안간힘을 쓴다. 짝만 1조는 벌써 2조의 풍선을 터트리고 여유만만. 하지만 7·8조는 경합이다. 앞 법우와 간격도 좁히고, 여 법우들을 중간 줄로 옮겨놓는다. 다시 붙었다. 맨 끝 법우가 원심력에 이네 나가떨어져 팽바닥을 뒹군다. 넘어진 법우들에게 손도 내밀고 서로 먼저도 떨어준다. 넘어지고 뒹굴지만, 웃음꽃이 피어난다. 법우애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평화와 행복은 어느새 법우애로 솟아들었다.

전남대 김소련(03학번·사회학과) 법우는 “부대끼며 법우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공통된 불교적 관심을 가진 법우들이 하나로 뭉치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는 모습에 청년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라고 말하며 즐거워했다.

### # 한국불교의 ‘희망’ 우리가 키웁니다.

“대불련?”  
 “정료!”

법우들은 이렇게 묻고 대답했다. 대불련 서울지부장 강지혜(02학번·성신여대·경영학과) 법우는 대불련 삼대강령을 설명하며, 법우들은 ‘진리의 빛, 일, 빛’이라고 말했다. 법우는 불타의 해명을 이어가는 진리의 여래이자, 불국토를 일구는 청년 불자라는 것. 대부분에서 청년 불자의 힘이 느껴진다.

“모인 법우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들은 한국불교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그 아들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토폰물 청년 불자들입니다. 그런 법우들이 다 모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키웁니다.”

한림대 김태연(02학번·종교학과) 법우도 “황상 말씀 속에 휩싸여 자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말 속에서 흘러보내면서 ‘무거운 수행’만으로 불교를 고집했죠. 조금은 쉽고, 가볍게 불교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대불련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평화자비보살단’을 결성해 경기도 일대도 보 답사를 떠난다. 이 기간 동안 입진각에서 탐복자와의 만남도 갖고, 8.15 축전도 참가한다. 몸으로 느끼면서 불교의 평화, 행복의 메시지를 찾아가 알리기 위해서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단찬 포부를 밝히는 법우들. 분명 이들에게서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었다.

글=김철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한국불교의 희망, 우리가 키웁니다.’ 지난 7월 31일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대불련 1600년 대회’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입재식 2시간 전. 기다란 현수막이 춘천시 강원대학교 실사구사관에 내걸렸다. 대형 플래카드 ‘대불련(♡U)’도 중앙도서관 계단에 나붙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종찬)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한 ‘제22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 제주도는 기본, 중국 유학생에서 재미교포까지 대불련 18개 지부 200여명이 이곳으로 날아들었다. 고민의 흔적도 역력했다. 인권·생명·대학·관용·나눔 등 이 시대 청년 불자의 화두들을 모든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녹였다. 대회 주제는 ‘대학생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 평화로운 세상’. 대회 준비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청년 불자들이 행복·평화·자비의 씨앗을 심기위해 이 같은 주제를 선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 1일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새벽예불을 올리고 있는 법우들.

# I ♡ U

### 대불련 40년 역사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난 1963년 강남 봉은사에서 서울지역 17개 불교학생회와 불교연구회들이 주축이 되어 불교개혁, 불교자주화에 이념을 두고, 삼대강령을 모토로 창립됐다. 현재는 전국 170여개의 대학 불교학생회가 모여 23개의 지부를 형성, 1만여명의 불자대학생 전국연합단체로 성장했다.

대불련은 특히 청년불교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기존 불교신행회에서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불련은 그간 1972년 제1차 화랑대회를 모토로, 1982년부터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경주 동국대, 남산, 충남 해전대, 수덕사, 전남 해남 미황사, 대흥사 등에서 열었다. 또 최근에는 본부 조직을 포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교팀(www.ikbf.org)’을 새롭게 꾸려 인터넷 불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02)732-0239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봉나루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